

이른 추위에 소비자들이 온열장판, 전기히터, 에어워셔 등 난방·환기용품 준비에 분주해졌다. 예년보다 한 달 빠른 현상이다. 하지만 막상 난방용품을 고르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점점 오르는 전기료에 절전형이라야 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자파도 적게 발생해야 한다. 히 워셔는 온수매트 등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기능과 사양에 따라 수많은 모델로 나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칫 자신의 필요보다 과하거나 부족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딱 맞는 난방용품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법을 알아보자.



예년보다 이른 추위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전매장에서 전자파 걱정 없는 온수매트를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내게 맞는 난방기구는 무엇일까?

▲온수매트=올해 온열장판 상품군에서는 단연 온수매트가 대세다. 일반 전기매트에 비해 가격대(30~40만원 선)가 높은 편이지만 유해 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온수매트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온수매트는 전기매트에 촘촘히 깔린 '전기열선'을 '물'로 바꾼 제품이다. 전기 열선을 물에 직접 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해 전자파 걱정을 덜 수 있다. 일반 전기매트보다 소비전력도 낮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온수매트에 부착된 보일러 모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유념하자. 보일러 모터가 일으키는 소음이 심하다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수매트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전기매트 또한 실속 있는 선택이다. 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장시간 고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저온이나 취침모드로 설정하고,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전자파에 대한

전기열선을 물로 바꾼 '온수매트'
절전·찜질효과 '적외선 전기히터'
공기청정+가습기능 '에어워셔'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적외선 전기히터-미니 전기히터=누진세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절전형 전기 제품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일반 히터보다 전기소모가 적은 '적외선 전기히터'에 대한 선호가 지속 될 전망이다. 절전형 효과는 물론 찜질 효과도 있는 원·근적외선 제품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다.

중대형 히터 대신 미니사이즈의 히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크기가 작아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옮기기 편하고, 어느 곳에서든 사용하기 좋은 소형 히터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딱 맞는 아이템이다.

또 전기히터가 넘어졌을 때 자동 전원차단 등의 기능은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필요한 기능이다.

▲에어워셔=자주 환기를 하기 어렵고 온종일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집안이 쉽게 건조해져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 때문에 공기청정과 가습기능이 결합된 에어워셔가 겨울철 필수용품으로 뜨고 있다.

에어워셔는 공기를 물로 씻어 다시 배출하는 제품으로 공기와 접촉하는 디스크의 크기가 공기정화와 가습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업체마다 사용하는 디스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몇 장의 디스크가 들어간 것이 성능 좋은 제품인지 비교하기 쉽지 않다.

김병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담당은 '국내 최대 크기 디스크 탑재' 등의 문구보다는 제품이 커버할 수 있는 '사용면적'을 비교하라고 조언한다.

또 사용하다 보면 물때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가 쉬워야 하며 오랜 시간 틀어놓는 제품인 만큼 전력소비와 소음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기자 김정미

수험표 “꼭” 가지고 오세요

지역백화점 수험생 특별 이벤트

지역 백화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고객으로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오는 10일까지 '수능생 특별 우대' 행사를 준비했다.

수능 수험표를 소지한 고객(본인에 한함)을 대상으로 6층 '썬스테이 아일랜드'에서 20%, 계스킨·캘빈클라인·힐피커데인·지바이게스·리바이스진에서 10% 할인 혜택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 밖에도 '환절기 건강관리 대표 상품전'도 열리고 있다.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강계상인'의 홍삼정 골드세트(240g)가 14만 8000원, 'GNC'의 프로폴리스 리퀴드(25ml)가 2만5900원, '비타민뱅크'의 슈퍼비타민C 세트(120정)가 3만20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11일까지 '수능탈출 특별 기획전'을 열어 영계주얼 브랜드 중심으로 수능생 고객에게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1층 주얼리 매장에서는 스펀젠지, 메트로시티 주얼리 등 수험생 고객 대상 11% 특별할인 혜택을, 화장품 색조매장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제공한다.

수험생을 위한 강좌도 마련했다. 롯데 문화센터에서는 매주 테마별로 '대학 새내기'를 위한 메이크업 '쉽게 따라하는 헤어스타일링' '다이어트 불필라테스' '최신 유행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강좌도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겨울의 시작은 부츠에서부터

러버·앵클·패딩부츠... 예쁜 다리 더 돋보이게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는 가을이 오기가 무섭게 손과 발이 시린 겨울이 오고 있다. 계절에 맞춘 스타일링은 기본. 올 겨울 스타일링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패딩점퍼, 잠금, 목도리를 비롯 최근에는 다른 패션 아이템들과의 매치를 통해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부츠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렌드에 맞으면서 자초에게 어울리는 부츠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어그부츠, 앵클부츠, 러버부츠, 레인부츠 그 이름도 다양하다.

▲레인부츠? 러버부츠? 비오는 날에만 신는 부츠?!
레인부츠라 불리는 러버부츠는 고무소재로 만들어져 여름에는 비에 젖지 않는 방수 기능을, 겨울에는 눈에 젖지 않는 것은 물론 따뜻한 털이나 니트 소재의 양말과 함께 착용해 보온성을 높여 계절과 관계없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양각적으로 만들어진 어그부츠는 뛰어난

보온성을 가지고 있어 큰 인기를 몰아왔지만, 눈이 올 경우 가죽이 상하거나 세탁 중 가죽의 변형, 변색, 털 손상 등의 피해사례가 늘 어이중으로 비유부담이 들기도 해 최근에는 러버부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가을, 겨울에는 어두운 단색계열로 모던함을 나타내는 스타일링이 일반적이지만 블랙, 레드, 그레이, 핑크 등 다양한 색상까지 다양한 선택을 통해 부츠만으로도 개성있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또 보온성이 뛰어난 부츠용 양말도 다양한 컬러와 무늬가 존재하므로 부츠 위로 살짝 접어 레그웨어 스타일로 연출할 수도 있다. 또한 겨울부츠는 두툼한 양말의 두께를 감안해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높은 굽? NO! 이제는 앵클부츠로.
자신감과 당당함을 나타내며 다리의 각선미를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 부티힐. 그러나 겨울에 눈이라도 내린다면 높은 굽은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인지 최근에는 3~5cm의 적당한 굽 높이의 편안한 앵클부츠가 출시되고 있다. 보통 발목에 맞게 제작되어 발도 편하고, 부츠에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의 양말이나 스타일링으로도 늘씬하고 아름다운 각선미를 선보일 수 있다.

▲이제는 패딩점퍼가 아니라 패딩부츠!
발상의 전환으로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패딩이 보온성을 가진 신발로 변신했다. 방수 처리한 원단에 사선 패턴의 감피 재봉으로 형태 유지성이 강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과 더불어 높은 보온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앞다투고 있다.

/시민기자 최혜인

국산 자동차 소비자 피해 쌍용차 최다

자동차 업체 가운데 판매량 대비 소비자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쌍용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한 국산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2160건이라고 7일 밝혔다.

판매대수 대비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쌍용자동차로 1만대당 평균 18.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어 르노삼성자동차 17.3건, 한국지엠 11.2건, 기아자동차 4.4건, 현대자동차 3.6건 등 순이었다.

대형 승용차 부문에서는 쌍용차의 '체어맨'이 만대당 26.4건의 피해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중형차 가운데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가 18.8건으로 1위였다.

중형차 중에서는 한국지엠의 '크루즈'와 기아차의 '포르테'가 각각 13.8건, 소형·경승차 범위에선 기아차의 '프라이드'가 3.3건으로 피해 빈도가 가장 높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가운데는 쌍용차의 '렉스턴'이 24.6건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연합뉴스

오천경매투자

- 경매 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는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 5천만원 이상 투자
 - 등기로 법적 보장
 - 매매 할때까지 함께 함
- 돈 빌려 주실 분**
 - 제1순위로 설정
 - 낙찰가의 80% 정도
 - 년 15% 이상 이자 지급
- 입찰 대리 하실 분**
 - 원하는 경매물건
 - 최저가로 낙찰
 - 최소 비용으로 처리

(주)오천경매 직통 : 010-3605-5000 T : 525-5000

사정상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 OP, 53평
- 9층, 창가 코너, 전망 좋음, 내부 올 수리
- 현, 보 1천만원에 월 70만원 임대 중
- 용자 6~7천만원 가능
- 사무실 전용, 주차 5대 무료, 즉시 입주
- 감정가 / 시세 - 1억 8천만원 정도
- 급매-1억2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매 010-4667-9300